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송미경 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화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이 두 지역 인구가 앞으로 추가될 도시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약 43억 명에서 52억 명으로 8억 명이 증가하는 반면, 도시인구는 12억 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증가 보다 높다.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12억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도시인구가 9억 명, 농촌인구가 3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 개요

도시화란 농촌과 외곽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도시화 현상은 지역간 연계성 강화, 출산율 감소, 수명 연장 및 고령화 등 특정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세계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미래의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오늘날 전 세계 공동의 이슈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233개 국가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을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50년대부터의 도시 및 농촌 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2050년의 도시화 전망을 내놓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부터의 도시 집적율을 분석하여 2030년에 도시별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올해 발간된 세계 도시화 전망 개정판을 분석하여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 메가시티와 대도시의 성장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

가. 세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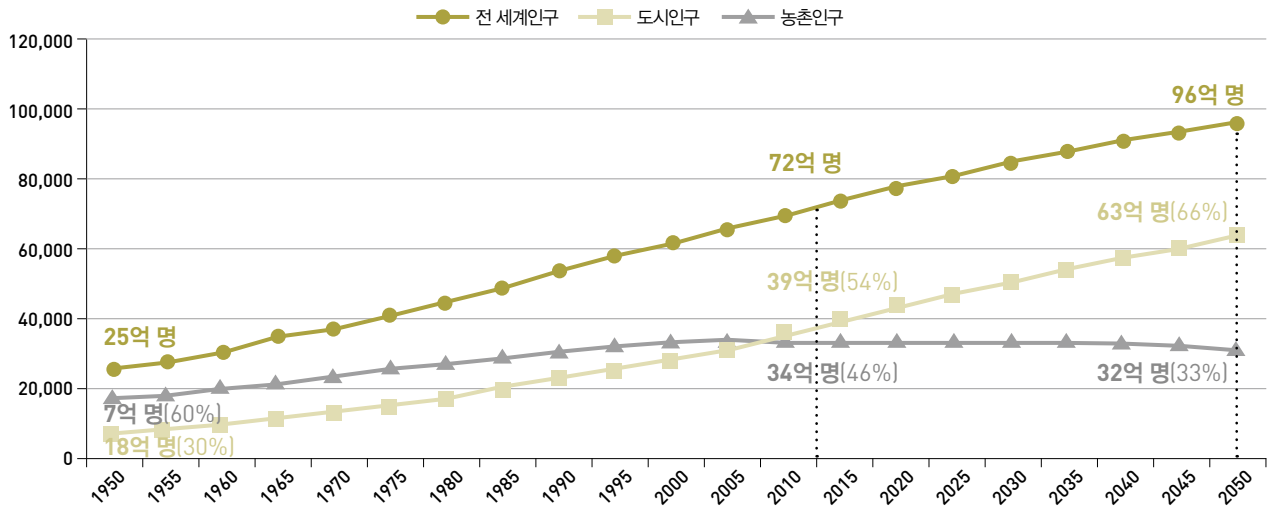
세계 인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는 약 72억 명에서 약 95억 명으로 약 23억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도시 인구는 39억 명에서 63억 명으로 24억 증가하는 반면, 농촌인구는 34억 명에서 몇 년 안에 최고점을 찍고 32억 명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¹. 그 결과 1950년대에 29%에 불과했던 도시인구의 비율은 2050년이 되면 약 66%까지 증가되고 농촌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33%로 감소하여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이 반대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새롭게 증가하는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나. 주요 지역별 도시화 전망

2014년 현재 전 세계 도시화는 평균 54% 수준이나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주요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북미와 중남미 지

1 이 수치는 인구수를 천만 명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그 결과 농촌인구와 도시인구 증감의 합과 전체 인구증가와 차이가 있다.

그림1 전 세계 인구변화와 전망 195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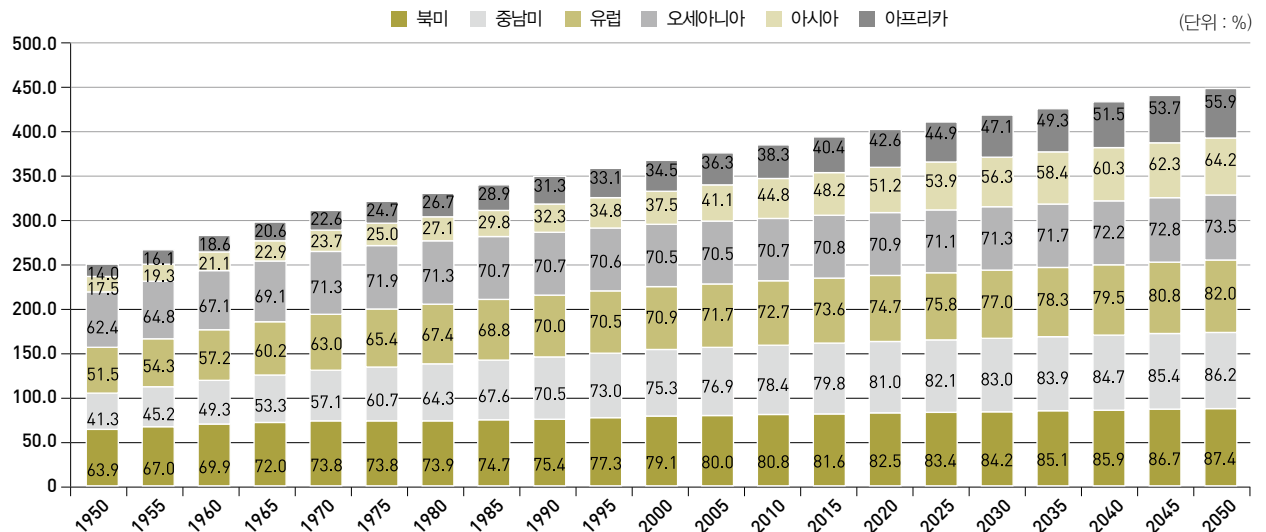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역이 80% 초반으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48%, 40%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밖에 유럽은 73%, 오세아니아 지역은 71% 정도 도시화가 진행 되었다.

도시화 과정도 지역별로 다양하다. 우선 1950년대에 이미 50~60%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었던 북미, 오세아니아와 유럽 지역을 살펴보자. 북미의 도시화율은 1950년에 64%에서 오늘날 80% 초반까지 도시인구가 꾸준히 성장하여 2050년이 되면 87%로 높은 도시화율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 1950년대에 도시화율이 62%로 높았던 오세아니아는 도시화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늘날 도시화율은 유럽과 중남미 보다 낮은 71%이고 2050년에도 74%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도시화율은 1950년대 51%에서 현재 73%까지 성장하여 2050년이 되어야 80%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주요 지역별 도시화율 1950~2050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1950년대에 도시화율이 낮았던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 지금까지는 중남미의 도시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1950년에 40%에서 오늘날 80% 초반까지 도시화율이 진행되어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북미지역의 도시화율을 따라잡았고 앞으로 북미지역과 비슷한 속도로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될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화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는 도시화 비율이 연간 1.5% 증가하고 있어 2020년경에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능가하여 2050년이 되면 도시화율이 64%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도시화 비율이 연간 1%씩 증가하여 2040년에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이 되면 도시인구가 5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다. 도시와 농촌 인구특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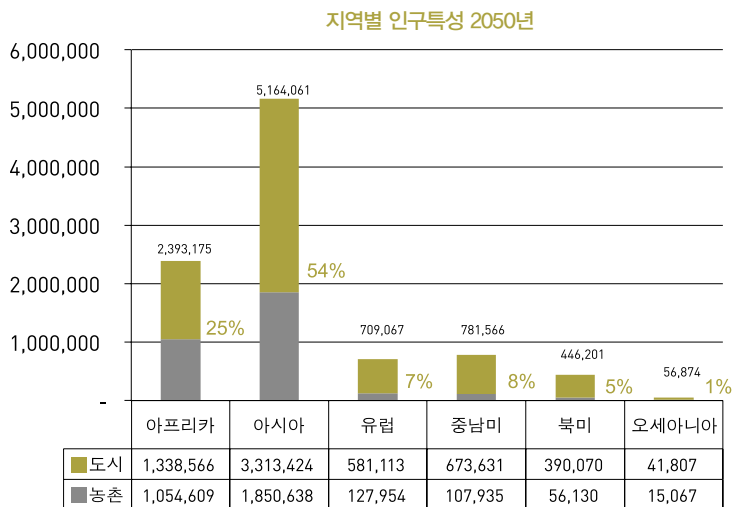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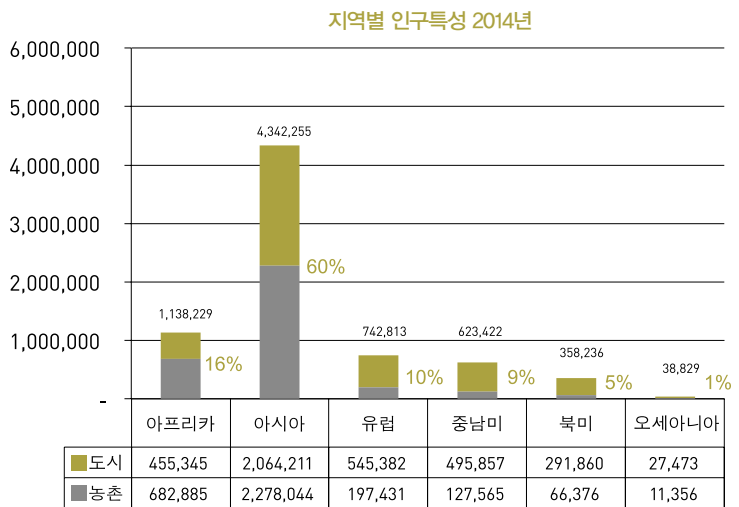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화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이 두 지역 인구가 앞으로 추가될 도시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3**에 주요 지역별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가 전 세계의 76%에 달하여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2050년까지 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약 43억 명에서 52억 명으로 8억 명이 증가하는 반면, 도시인구는 12억 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증가 보다 높다.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12억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도시인구가 9억 명, 농촌인구가 3억 명 증가할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4.5억 명의 도시인구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 특징을 세분화 하면 아시아는 새로이 추가되는 도시 인구 8억 명 외에 농촌이 도시로 전환되거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증가되는 도시인구가 6억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원인 상당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영향임을 시사한다.

그림3 주요 지역별 인구특성 (2014년, 2050년 비교)

(단위: 천 명, %)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표1 도시인구 순위 (2014년, 2050년 비교)

(단위: 천 명)

순위	2014년			2050년		
	국가	지역	인구	국가	지역	인구
1	중국	아시아	758,360	중국	아시아	1,049,948
2	인도	아시아	410,204	인도	아시아	814,399
3	미국	북미	262,734	미국	북미	350,338
4	브라질	중남미	172,604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295,480
5	인도네시아	아시아	133,999	인도네시아	아시아	227,770
6	일본	아시아	118,136	브라질	중남미	210,238
7	러시아	아시아	105,318	파키스탄	아시아	155,747
합계			1,961,355			3,103,919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세계도시인구는 2014년 현재 39억 명으로 이중 아시아의 도시인구가 21억 명(53%)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유럽(14%), 중남미(13%) 순으로 도시인구가 많다. 국가별 도시인구 순위를 보면 중국이 7.6억 명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인도가 4.1억 명, 미국이 2.6억 명, 브라질이 1.7억 명, 인도네시아가 1.3억 명, 일본이 1.1억 명, 러시아가 1억 명으로 이 7개 국가의 도시인구는 전 세계 도시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이 중 5개 국가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다.

표2 농촌인구 순위 (2014년, 2050년 비교)

(단위: 천 명)

순위	2014년			2050년		
	국가	지역	인구	국가	지역	인구
1	인도	아시아	857,198	인도	아시아	805,652
2	중국	아시아	635,424	중국	아시아	335,029
3	인도네시아	아시아	118,813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144,875
4	파키스탄	아시아	114,221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117,051
5	방글라데시	아시아	105,386	파키스탄	아시아	115,335
6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94,718	인도네시아	아시아	93,607
7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78,143	방글라데시	아시아	89,504
합계			2,003,903			1,701,054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2050년이 되면 아시아 지역의 도시인구는 20억에서 33억으로 61% 증가하고, 아프리카는 4억 명에서 13억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시인구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이다. 2014년~2050년까지 인도는 4.4억 명, 중국은 2.9억 명, 나이지리아는 2억 1,200명 도시인구가 증가되어 세계 도시인구 증가율의 37%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농촌인구는 현재 총 34억 명으로 90% 이상의 농촌인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그 중 인도와 중국의 농촌인구가 각각 8.6억 명과 6.4억 명으로 전 세계 농촌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으로 모두 1억 명 이상의 농촌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 농촌인구가 각각 9,500명, 7,800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농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로 각각 5,000만 명, 3,900만 명, 3,8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 농촌인구 증가율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현재 농촌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3억 명 정도가 감소하고 인도는 약 5,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인구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세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이 되면 약 24억 명의 증가로 총 95억 명이 살게 될 것이다. 둘째, 2050년까지 증가되는 인구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로 2050년 도시인구는

63억 명, 도시인구 비율은 66%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 중 특히 성장폭이 큰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의 도시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인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감소하거나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지역만큼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인구도 65%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3. 신흥 도시들의 성장전망과 정책방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developed countries)로 분류되고 있는 서구의 도시들은 대체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또한 도시의 성장 규모도 1~2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발달되기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되었다. 반면,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은 도시가 수년에 걸쳐서 단기간에 만들어지며 소수의 도시에 국가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찍이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오늘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중국, 브라질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성, 도시 성장 형태 및 규모, 도시 이주는 각 국가의 인구 규모,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의 도시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소득 수준, 도시화 속도, 도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도시 성장 잠재력과 도시화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단계별 도시화 전망

그간 도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장해 왔다. 서울의 발전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의 발전은 출산율 증가, 수명증가,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지리적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며 경제 활동, 정부운영, 소비활동을 집적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 수준(국민총소득, GNI)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단계를 비슷한 유사한 국가들을 묶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진다. 물론 도시 성장에 대한 대비가 없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² 글로벌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성을 세분화 하고 지속 가능 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별 소득수준³에 따르면 크게 고소득, 중상위소득, 중하위소득, 저소득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고소득 국가들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은 물론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물론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산유국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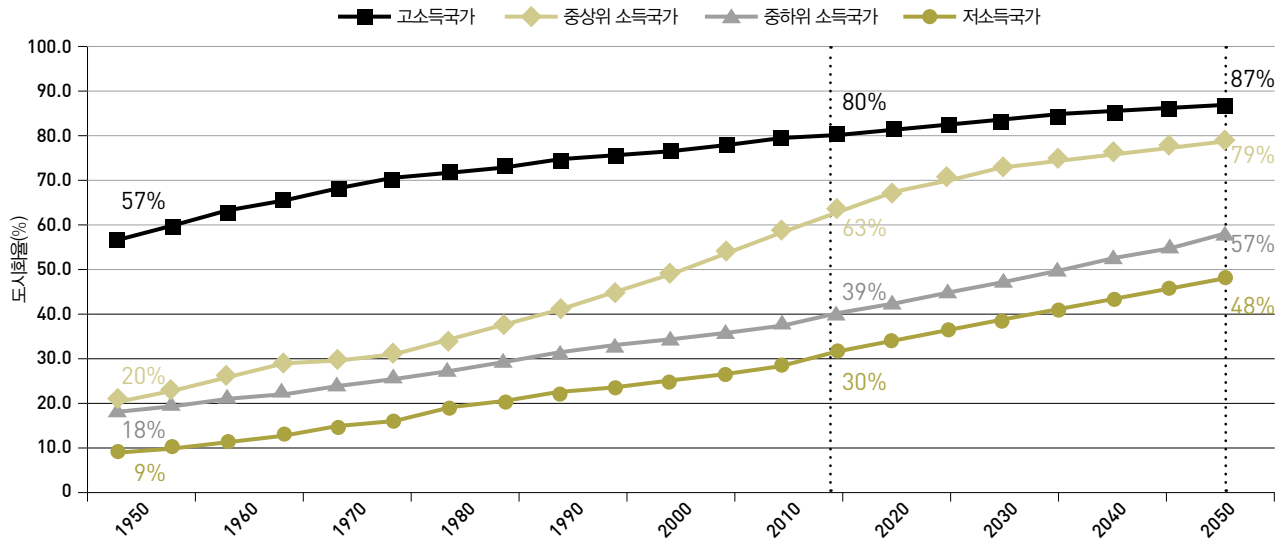
중상위 소득국가로는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부각되어 고속 성장한 BRICS⁴에 해당하는 브라질, 중국, 남아프리카는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헝가리,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튀니지 등 다수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중하위 소득 국가는 몽골,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베트남, 라오스, 가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남수단 등이 대표적인 저소득 국가들이다.

² UN,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E/2013/50/Rev. 1 ST/ESA/344)

³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조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lassification of Countries by Major Area and Region of the World and Income Group.

⁴ BRICS : BRIC countries의 준말로 2001년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초기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해당하는 말이었으나 BRICS 정상회담에 남아프리카가 참가하면서 BRICS라 명하였다. BRICS 국가의 2012년 기준 GNI 수준을 보면, 러시아는 고소득, 중국, 브라질은 중상위 소득, 인도는 중하위 소득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4 국가소득수준별 도시화 현황, 1950~2050



주 : 소득수준별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2012년 GNI를 기준으로 함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이러한 구분에 따라 도시화 수준을 보면, 고소득 국가는 소득 수준이 높음은 물론 도시화도 80% 이상인 국가들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성장이 진행될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 소득 국가들의 도시화 수준을 보면 1950년대에는 20% 내외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중상위 소득 국가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약 63%의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2050년까지 도시화가 8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하위 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현재 도시화율이 약 39%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5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의 도시화 또한 30%에서 48%까지 중하위소득 국가와 비슷한 속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중하위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들의 연간 도시화율이 중상위 소득 국가의 도시화율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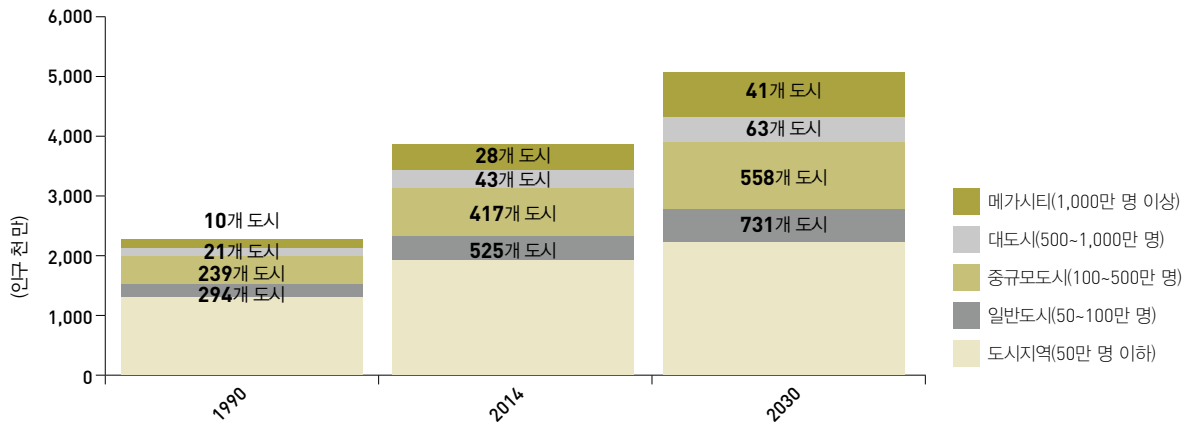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이나 국제도시개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소득 수준과 도시화 수준을 비교하면 각 국가의 도시화의 특성과 주요 도시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실제 소득 수준은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런 특징을 국가의 도시화율과 비교하면 인도의 경우 도시화율이 32.7%로 다른 중하위소득 국가와 유사한 것을 보

아 농촌인구가 많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높은 점이 반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도시화율이 54%로 다른 중하위 소득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도시 성장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점이 도시성장과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신흥국 메가시티와 대도시의 성장 전망

유엔은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별 도시인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 규모에 따라 메가시티(Megacities, 1,000만 명 이상), 대도시(Large cities, 500~1,000만 명), 중규모 도시(Medium-sized cities, 100~500만 명), 일반도시(Cities, 50~100만 명), 도시지역(30~50만 명)으로 구분한다. 이 분류는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구분으로 국가별 구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 '메가

그림5 전 세계 도시인구의 도시규모별 구분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시티’, 부산, 인천, 대구 등 5대 광역시와 수원시, 울산시, 창원시가 ‘중규모 대도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등이 ‘일반도시’, 제주시, 평택시, 의정부시 등이 ‘도시지역’에 해당된다⁵. 오늘날 전반적인 도시규모별 도시인구 구성을 보면 메가시티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4.5억 명으로 세계 도시인구의 12%, 대도시 지역의 인구는 약 3억 명으로 전체 도시인구의 8%, 중규모의 도시인구는 약 8.5억 명으로 전체 도시인구의 21%, 일반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규모는 3.6억 명으로 9%이다. 가장 많은 도시인구가 거주하는 50만 명 이하의 도시지역이나 마을(town)은 전체 도시인구의 52%에 달하는 19억 명이 살고 있다. 오늘날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의 개수는 2014년 기준으로 총 28개가 있다. 그리고 28개 도시 중 동경, 오사카(이상 일본), 뉴욕, LA(이상 미국) 모스크바(러시아), 파리(프랑스), 런던(영국)을 제외한 21개 하면 모두 신흥시장의 메가시티이다. 가장 큰 메가시티는 동경으로 3,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델리와 상하이가 각각 2,500만 명, 2,300만 명,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뭄바이가 약 2,100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어, 신흥국 중에는 현재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이 가장 큰 메가시티를 보유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동경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700만 명으로 여전히 큰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하고 2위 도시인 델리는 3,600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뒤로는 상하이, 뭄바이, 베이징 등 중국과 인도의 도시들이 2,800만 명~3,000만 명의 인구로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등 중남미 도시가 2,300여 명으로 11위권으로 밀려나는 대신 아시아 지역의 다카(방글라데시)와 카라치(파키스탄), 아프리카에 카이로(이집트)와 라고스(나이지리아)의 도시인구가 2,400만 명~2,700만 명으로 증가하여 9위권 안에 들 것이라 예상된다. 2030년에 새롭게 메가시티로 진입할 도시를 보면 중국과 인도가 총 5개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3개, 중남미가 2개, 그 밖에 아시아 지역이 3개 도시⁶로 총 13개 도시를 메가시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40개에서 63개도 약 20개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도시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상하이, 베이징, 충칭, 광저우(광둥), 선진, 톈진 등 6개의 메가시

⁵ 한국은 85개시 중 서울과 5개 광역시 외 창원시, 청주시, 김해시, 고양시, 구미시, 광명시, 제주시, 전주시, 포항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의정부시, 울산시, 영진시 등 총 25개가 30만 이상의 도시로 UN이 분석하고 있다.

⁶ 청규(일본), 라호르(파키스탄), 호치민시(베트남)

표3 도시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의 2030 메가시티와 대도시

순위	중국의 메가시티와 대도시			인도의 메가시티와 대도시			나이지리아의 메가시티와 대도시		
	도시명	2014	2030	도시명	2014	2030	도시명	2014	2030
1	상하이	22,991	30,751	델리 (수도)	24,953	36,060	라고스	12,614	24,239
2	베이징 (수도)	19,520	27,706	뭄바이	20,741	27,797	카노	3,508	6,198
3	광저우	11,843	17,574	콜카타	14,766	19,092	이바단	3,085	5,499
4	충칭	12,916	17,380	방글라로르	9,718	14,762	아부자 (수도)	2,301	4,913
5	톈진	10,860	14,655	첸나이	9,620	13,921	포트하커트	2,343	4,562
6	선진	10,680	12,673	하이데라바드	8,670	12,774			
7	청두	7,289	10,104	아하마다바드	7,116	10,527			
8	난징	7,127	9,754	수라트	5,398	8,616			
9	우한	7,838	9,442	푸네	5,574	8,091			
10	항저우	6,121	8,822	자이푸르	3,373	4,885			
11	둥관	7,410	8,701	력나우	3,150	4,493			
12	포산	6,989	8,353						
13	수저우	5,156	8,098						
14	선양	6,194	7,911						
15	시안	5,867	7,904						
16	샤먼	4,124	6,911						
17	하얼빈	5,351	6,860						
18	칭다오	4,445	5,920						
19	정저우	4,234	5,900						
20	다롄	4,366	5,851						
21	중산	3,474	5,518						
22	지난	3,927	5,234						
23	창사	3,640	5,013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자료 분석

티와 10개의 대도시가 있고 2030년이 되면 1개의 메가시티와 6개의 대도시가 추가되어 총 7개의 메가시티와 16개의 대도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인 인도의 경우 델리, 뭄바이 외에도 추가로 4개 대도시(아하마다바드, 방글라로르, 첸나이, 하이데라바드)가 메가시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도시는 2개 추가되어 총 6개의 메가시티와 5개의 대

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카이로, 킌사사, 라고스가 유일한 메가시티이지만, 2030년에는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 루안다(앙골라) 3개가 추가될 예정이며 대도시도 현재 3개에서 2030년 12개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아프리카에서 도시인구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지리아는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여 메가시티인 라고스 외에 이바단, 카노, 아부자(수도)가 대도시로 추가될 전망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에노스 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리호드제네로, 상파울로 4개에 보고타(콜롬비아), 리마(페루)가 메가시티에 추가될 전망이다.

2030년이 되면 메가시티의 인구는 4억 3천여명이 증가하여 약 7억 3천만 명이 메가시티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도시인구 대비 비율은 14%로 약 2% 증가 것을 예측된다. 대도시의 인구도 1억 3천여 명이 증가하여 4억 명이 거주하고 전체 도시인구의 약 9%를 차지할 것을 예측된다. 이밖에도 중규모 도시인구는 8억 명에서 11억 명으로 증가하고 일반도시는 3.6억 명에서 5.1억 명으로 증가하여 도시인구 대비 비율이 각각 22%, 10%로 1%씩 증가하고, 50만 명 이하의 도시지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19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4억 명이 증가하여 전체 도시인구 대비 50만 명 이하의 도시인구 비율이 52%에서 45%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정책 트렌드

전 세계 도시화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들도 이 지역의 도시 성장과 밀접하다. 리오 20+에서 결의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보면 도시는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모의 시장과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교통, 산업, 주거에 필요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깨끗한 물, 학교, 병원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 및 사회 서비스 시설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미리 계획되지 못하다면 도시의 성장이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스프롤, 공해, 환경 저하, 생산성 저하, 소비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오늘날 브라질, 멕시코 시티,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신흥도상국 도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들 안고 성장해 왔다. UN은 전 세계 도시화 트렌드와 도시들의 도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도시화 속도를 알맞게 예측하고 이에 맞춰 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공간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UN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 빈민을 양산하여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도시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도시인구 유입 제한 정책보다 토지권 배당(allocate land rights), 토지이용관리, 토지 재분배, 지역개발구역 설정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도시 이주민을 적절하게 수용하거나, 투자유치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에 경제 유형을 다양화하고 경쟁력 향상시키는 방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셋째, 한 국가 내에 여러 도시가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장려하면 과거에 급속한 도시화를 이룬 국가들처럼 1~2개의 대도시만 집중적으로 성장하여 경제와 행정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과 과도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기반 시설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넷째, 도시화와 도시성장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적 수요와 우선순위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도시인구증가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고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전자정부 등 정보통신기술이 시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결론

본 원고는 UN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 국가의 도시화 특성,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 메가시티와 대도시 지역의 성장 전망, 글로벌 정책트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도시개발과 공적원조를 추진하는데 있어 수요를 분석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에 도시화율이 낮았던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도시성장률이 중남미를 뛰어넘으면서 도시화 수준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많아 전 세계 도시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도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새로운 메가시티와 대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대비 도시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 전체 인구가 12억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3배 많은 9억 명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아프리카의 도시성장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50년까지 도시인구는 2.9억 명, 농촌인구는 1.4억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이자 세계 4위의 도시인구, 세계 3위의 농촌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의 메가시티는 현재 라고스 1개이지만 2030년이 되면 카노, 이바단, 아부자, 포트 할코트(Port Harcourt)가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 전망은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전망에 맞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같은 중상위권 신흥국은 경제적 성장과 도시성장이 상당히 진척되어 2020년까지 가장 높은 연간 도시화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점차 도시 성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의 경우 앞으로 도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양적 성장에 대비하기보다 질적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춰 지금까지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을 정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면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는 도시의 성장과 경제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큰 편으로 예측된다. 2040년경에는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다수의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특정지역에 과도한 인구 집중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도시화 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은 도시와 농촌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과잉투자과 편중된 개발을 예방하고 기존에 축적된 역사, 문화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보다 섬세한 도시 계획 및 관리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먼저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도시들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D-ROM Edition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Population Divisio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Classification of Countries by Major Area and Region of the World and Income Group.